

신선한 논문 뜨거운 토론 '결집' 되다

제2회 불교학결집대회 성료 - 주목받은 논문들

결집(結集·sang)은 축제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있었다는 4번에 걸친 결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중생의 등불로 삼으려는 불자들의 축제였다면, 21세기 한국에서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결집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교학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즐거운 만남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중범)는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결집대회에서 발표된 174편의 논문은 최근 불교학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1회 대회에서 원효 사상이 하나의 분과로 발표된 반면 올해 2회 대회에서는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와 한·일 불교의 교류사, 응용불교 관련 논문이 늘었다. 특히 응용 불교의 경우 1회 대회 때 1개 분과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3개 분과로 늘어났다. 이는 불교학이 학제간연구로 외연을 넓히고,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분야가 학문 영역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은 결집대회에서 주목받은 논문들의 요약.

“촉천무후자 연구에 큰 기여할 것”

박상국 씨의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경인 국보 제196호 <신라백지묵서화엄경(755년 사경·이하 화엄경 사경)>에서 발견되는 촉천무후자는 모두 13가지이며, 이를 통해 국보 제196호 화엄경 사경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한역했던 당시(695~699)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경임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은 '신라백지묵서화엄경'에 나타난 촉천무후자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문헌과 비교해 촉천무후자가 사용된 비율이 매우 높아 촉천무후 연구에도 기여할 중요한 자료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촉천무후자는 중국 유입의 여황제인 당나라 촉천무후(625~705)가 새로 만든 글자로, 정확히 몇자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12자에서 19자까지 학자마다 주장이 다양하다. 이 화엄경 사경에 나타난 촉천무후자는 '初' '年' '月' '日' '星' '正' 등 모두 13자로 이들 모두 현재의 모양과는 사뭇 다르다. 촉천무후자 관련 자료가 희귀한 상황에서, 이 화엄경처럼 13종의 촉천무후자 대부분이 80% 이상의 비율로 발견되는 자료는 더욱 드물다는 것이 박실장의 설명이다.

“초기 불교·기독교 약에 대한 견해 비등”

곽상훈 신부의 '마라와 사탄의 비교 고찰'

실제 가톨릭 신부로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곽상훈 신부는 '마라와 사탄의 비교고찰'에서 두 종교의 대표적인 악을 비교했다. 곽 신부는 "초기불교와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에 대한 관이던 견해 등 두드러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악의 체형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며 "정법의 정자, 신과의 합일을 꾀방 놓는 마라와 사탄은 부처님과 그리스도가 제압하면서, 인간을 해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종교 사이에 문헌상의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악의 체형의 유사성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마라는 윤회 속의 존재로 업의 결과를 거둬 무상과 미애를 면할 길이 없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파멸하는 궁극성이 결핍된 존재라는 공통점도 지났다.

그러나 곽 신부는 "사탄의 거처가 죽음이 지배하는 낮은 곳인 반면 마라는 대단한 권세, 영향력을 지녀 둘의 위상이 다르고, 마라는 수행과 통찰력의 함양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사탄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체형으로 극복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차이점도 덧붙였다.

“일연의 미완성 작...조선초 간행”

하정용 씨의 '삼국유사의 성립과정...'

송광사 성보박물관 하정용 연구원은 <삼국유사>의 간행시기와 편찬자, 이후의 목록변화 등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대한 일반의 통설을 뒤집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 연구원은 '삼국유사'의 성립과정에 대하여 "삼국유사는 일연의 미완성으로 고려시대에 간행된 바 없다"며 "여러 가지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시대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편찬연대는 '미상'이나 '1281~1283년(충렬왕 7~9년)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 연구원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이체자 가운데 '뎡(지)'는 1390년에 간행된 문헌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체자를 통해 간행시기를 엿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삼국유사>에서 고려본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일연의 제자인 청본의 '무각기'에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아 무각기가 세워진 1322년 이후에 간행된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정신치료 정서적 깨달음이 바탕”

최훈동 씨의 '불교의 무아사상에...'

정신과 전문의인 최훈동 박사가 '불교 무아사상에 대한 신경정신의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불교와 정신치료는 믿음에 의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고통을 내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정신치료에서는 자아의 역할이 필수적인 반면 불교에서는 번뇌의 근저에 자아의 실체를 고집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정리했다. 즉 정신치료는 지적 이해가 아닌 정서적 깨달음으로 치료의 변화를 가져오고, 불교는 관념적 이해가 아닌 체행적 깨달음에 의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치료와 불교의 깨달음이 자기자신을 객관적이고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도 유사점이다.

최 박사는 "정신치료는 고통의 근원적 해결로 아집에 대한 영적 성찰을 불교로부터 도입해 정신치료의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구과제도 제시했다.

오유진 기자 e_xest@buddhapia.com

북한문화재 자료관 개설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north.nricp.go.kr



북한에는 어떤 불교문화유산이 있을까? 최근 불교계가 신계사와 영통사 등 북한 사찰 복원 불사를 추진하면서 증폭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궁금증을 '클릭' 한 번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홈페이지 상에 북한문화재자료관(http://north.nricp.go.kr)을 마련하고, 2천여 항목의 북한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자료관에 공개된 북한 소재 불교 문화재는 고려시대 5.7m 거불인 개성시 개풍군 신석리 석불입상(사진)과 네 마리 사자가 탑신을 받치고 가운데 비로자나불이 놓여있는 금강암 사자탑 등이 특징적이다.

북한문화재는 자료관 '문화재찾기' 항목에서 재질·시대·유형·지역별로 검색하거나, '연표검색'에서 특별한 사건과 동시대의 북한 문화재를 연결해 찾아볼 수도 있다. 또 '특별전시관'은 '고구려 공성을 찾아서'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라는 두 주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에서는 마치 직접 고분에 들어간 듯 한 느낌으로 고분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북한문화재자료관의 기본 정보는 1988년부터 9년 동안 북한에서 제작한 20권 분량의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던 '남북통합문화관'의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조선유적유물도감>에 나온 북한에서 쓰는 용어와 어투를 최대한 존중해, 북한에서의 문화유산 서술방식을 따랐다.

오유진 기자

고침 본지 471호 <고려대장경 감교록> 출간기사의 제목 '고려대장경 오자·파자 4만 9천여자'를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판본을 비교한 결과 4만 9천여자의 차이'로 수정합니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0>

생명과학(2)

세상에는 속물(俗物)이란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를 말하는 듯하다. 어떻게 보면 누군들 속물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는 생활하면서 상대방이 속물이나 아니냐를 굳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마음공부하는 이들이 스스로 속물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부인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생명체가 원천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생존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 여러 의미부여를 통해 포장되어 있을 뿐 그 모양새는 동서고금을 통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은 선(禪)을 통하여 자신의 본래의 면목을 찾는

의 절제(制)지만 욕망의 부정(否)을 향하는 이들과는 달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찌서일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 행하는 절제를 통해 축약되고 집약되어 자신 속에서 충분히 무르익어 있다가 어느 때 상황이 되어 한 순간에 특정 방향이나 대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발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행하는 형태의 욕망의 절제(制)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체로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욕망의 결과물이기도 하기에 생명체로서 나는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충분히 익은 욕망으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펼쳐 뿐이다. 그것은 욕망의 주인이다. 결코 욕망의 제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욕망의 절제를 통하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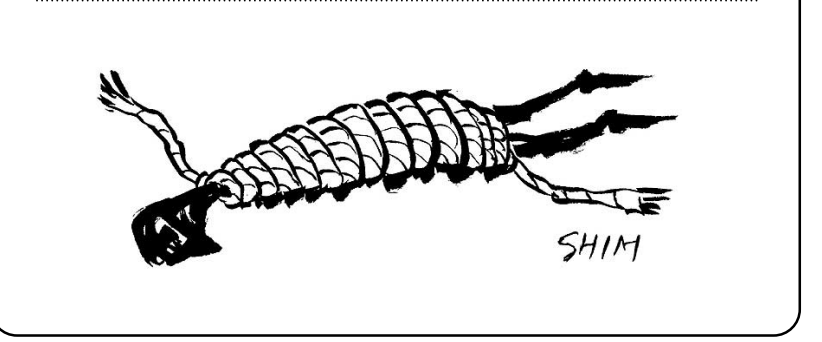
자기 속물근성 인정해야 공부돼 욕망 절제하는 고통마저 즐겨야

는 데 있어서 누구나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욕망의 절제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의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인간적 욕망의 절제를 위하여 많은 수행과 종교적 고행을 평생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망의 절제를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수행의 지표로 삼아 작은 위안을 받으며, 욕망의 절제를 통한 욕망의 부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생토록 끝없이 나아간다. 또 이를 통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자 - 욕망이 되지 않고 - 욕망의 소멸을 얻어 해탈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마음공부를 하는 이로서 나는 욕망을 절제(制)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안다. 또 홀로 있을 때 욕망이 없기에 움직이는 그 자체가 곧 쉼(休)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당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국립대외피재서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4-3733

★부처님 오신 날 특별행사★

당일코스 일반여행

봉 신특사 + 부석사 + 청량사

삼사찰 순례여행

신특사
여주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봉미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강기슭 암반 위에 벽돌로 쌓은 다층 전탑이 있어서, 고려 때부터 벽전이라고도 불렀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애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당은 화엄교학을 펴기 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 우리 나라 화엄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청량사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명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라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봉수지리악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봉우리)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종지리이다.

■ 날짜: 2004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매일출발]
■ 코스: 서울 - 여주신특사 - 영주부석사 - 봉화청량사 - 서울
■ 회비: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봉사료 일체포함]
※ 석기탄신일은 가운 봉암사로...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창에 "동백여행사" 라고 치세요.
친목단체여행 / 주야 휴일 접수함 ※ 특전: 동백회원 10% DC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농협 046-02-119148 [동백여행사]

■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경방빌 백화점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너구리상 앞